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 영 석
주 간 이 석 우
편집장 오 홍 섭
인쇄인 김 준 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 (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2056, 2860
FAX (0331) 280-2238

제1021호 〈주간〉 1993년 5월 3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입시(일반)내신 40%, 수학능력 60%

특차모집 법·정경대 40%, 기타 20%로

본고사 취소, 총학 유감 표명

본교는 94년입시에서 본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4월20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다음날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신용철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은 본고사 취소 결정에 대해 "본고사를 실시할 경우 입시관리가 어렵고,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언론계열 영어, 자연계열 수학 과목으로 본고사를 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돌연 바꿔 학교측의 태도 변화는 최근 잇다른 입시부정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있는 교육부의 본고사 폐지 권고과 본고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를 수도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고사철회로 선회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서울총학생회는 총학과 협의없이 결정한 과정에 항의하는 성명를 냈다.

한편 입시연구위원회(위원장 신용철 교무처장)는 지난 4월 29일 평가요소별 반영비율과 특차모집 비율을 잠정결정지었다. 반영비율은 일반학과 내신성적 40% 수학능력시험 60%, 예·체능학과 내신 각 40%에 음악계열이 수학 10%, 실기 50%이며, 미술계열은 수학 30%에 실기 30%, 체육계열은 수학 20%, 실기 40%이다.

사범대학은 내신 40%, 면접고사 5%, 교직적성 인성검사 5%이며, 수학능력시험은 영어교육과 50%, 미술교육과 수학능력시험 20%, 실기고사 30%로 선발한다.

복차모집에 있어서 법대와 정경대는 정원의 40%, 기타 대학은 20%를 선발할 예정이나 선발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 예·체능학과와 사범대학, 야간학과는 특차모집에서 제외됐다.

수원도서관 연장개방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3월 11일부터 외대도서관 자료열람실 이용시간을 기존의 5시 30분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개방하고 있다.

리시아어과와 국제관계학과 등 야간학부신설 이후 야간학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이번 학기부터 도서관을 연장 개방하게 되었다.

단체교섭, 양측 갱신안 검토중

4일 3차협상 후 구체적 쟁점 떠오를 듯

93년도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학교와의 교섭이 현재 진행중이다.

양측은 지난 28일 2차협상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요구안을 교환했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의사개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측은 일용직과 사무보조직을 제외한 직원에 본봉 5% 인상, 일용직 직원에 일당 4천5백원 인상 등의 임금인상안과 단일호봉제 실시, 사무보조직을 사무직으로 정규임용할 것 등의 단체협약안을 내놓았다.

학교측은 결원충원조항 삭제, 단체교섭시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삭제, 관리·환경직의 근무형태 등을 담은 단체협약안을 노조측에 전달했고 임금인상안은 현재 작성중이다.

공영일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이번 교섭과 관련해 "노사간 서로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고 경희가족정신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학교측이 내놓은 단체협약안이 개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섭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구국선관 고시원 활용

수원캠퍼스 에지원은 체대특기생들이 신축 국선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국선관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하고 각 단대별 입사자를 선발한다. 겨울방학동안 진행된 보수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총 1백28명의 학생들이 입사할 예정이며, 학부는 단대별로 선발기준을 통해, 대학원은 단대인원수에 비례해 입사인원을 모집하게 된다.

양 캠 등록금 협상 타결

학교 입장고수 철회로 일단락

서울, 수원 양캠퍼스의 93학년도 등록금에 관한 협의가 학교·학생측간 합의서를 지난 14일과 19일 각각 작성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서울의 경우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율에 요구안 속의 한 항목으로 교육여건 개선 부분을 포함시켜 협상을 진행했으며 수원은 등록금의 민주적책정요구를 협상의 기본자세로 삼아 학교측의 강경입장과 맞서는 기운데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어보였다.

동록금 인상률협상 불가방침 철회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학사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작년과 같은 학생들의 서울 본관 점거농성" 등의 극단적 행동은 학교나 학생 모두에게 피해만 줄뿐 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올해 교제투는 서울과 수원 학생의 진행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서울의 경우 양 캠퍼스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늦어졌고 수원도 서울이 인상률논의만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합의된 상황에서 학교측과의 협상이 어려움이 나타나 양캠퍼스간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등록금 투쟁의 진행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일반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전전이 관성화된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2월 2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여덟차례의 협상을 거친 결과 지난 14일 학교·학생측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사항은 인상률을 포함한 44가지 항목으로, 인상률의 경우 평균 2%인하에 합의했으나 학교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확한 인하율은 합의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자는 합의서 작성이후 등록금합의이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30일 1차회의를 가졌다. 총학은 복지환경개선부문의 구체화와 지리학과 실험실습비 문제, 본고사폐지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였고 학교측은 이후 모임에서 이를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캠퍼스의 교육제정확보 투쟁이 지난 19일 제과대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측과 학생측이 등록금 책정,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에 대해 최종합의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번협상은 지난 12일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률협상 불가방침 철회후 급진전되어 학생측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실험실습비 불법운용 주장

지리과 부총장에 공개 질의

지리학과 '92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문제가 수업거부 일주일째 맞으며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리학과 학생회는 지난 27일 비상총회를 열고 '92년 실험실습비 지급이 과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학교측의 명확한 책임추궁 촉구를 요구하며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문리대 교무실에서 공개한 92년도 실험실습비 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간학부 실험실습비중 3백여만원, 야간학부 1백여만원의 지출내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획관리실이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검사결과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9일 지리학과생들은 ▲각과별 실험실습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지리학과의 실험실습비가 면직 운영되었고 내역공개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공영일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 관계자는 "업무 분권화를 위해 과에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과차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밝혀 학생들의 요구안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농활대 고창군서 활동

7일부터, 사흘간 망월동참배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봉농활을 고창군에서 실시한다.

이번 농활은 87년 이후로 순창군에서 실시하던 것을 고창군으로 장소를 바꾸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의대를 제외한 10개 단대에서 일제히 행해진다.

농활대는 오는 6일 오후 10시 크라운관에서 농활의 의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마친 후 7일 새벽 1시경 출발하며 7일과 8일 작업을 끝낸 후 9일에는 광주민중항쟁 13주기 기념 망월동 묘역 참배를 할 예정이다.

주 선 농민학생 연대사업부장은 이번 농활과 관련해 "그동안 농활 과정속에서 행해졌던 관성적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고창군으로 옮겼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 있는 약속 이행으로 농활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농활과 관련한 전체교양은 오는 4일 6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의대는 야사법 시행규칙시행과 관련하여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는 10일 별도로 농활에 들어간다.

"계승 전대협, 건설 한총련"

한총련 대의원대회, 25일부터 3일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창립대의원회의가 지난달 25일부터 2박 3일간 전북대학교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6면)

이번 대회는, 전대협의 6년간 활동을 평가하고 조직적 변화를 시도하여 출발한 한총련의 첫 대의원대회로 한총련 강령규약의 심의·확정과 의장선출, 총노선·통일방안의 확정 등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날인 25일은 오후 8시부터 개막제가 시작되었고 개막제에서는 전대협을 평가하는 시간과 아울러 한총련 건설에 대한 축하공연이 있었다.

둘째날과 세째날에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본대회가 열리는 동시에 '전대협 열사추모제'와 문익환목사 특별강연회, '한총련과 함께 하는 한마당'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북대 총학생회가 '민중권력쟁취와 한총련의 민주적 강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독자적인 행사준비에 항의해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변대에서 "조선민족문화…"논의

아태연구소, 5개국 참가 세미나 개최

본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 부설 동북아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가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중국의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동북 아시아 조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할 것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포 학자들이 자국의 사회와 역사를 자체 평가하고 각자 다른지역의 동포사회를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교 45주년…' 구성 예정 전 경희인 동참사업추진

개교 45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으로 박기서(문리대·사학)교수가 지난 4월6일 임명됐다.

추진위는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까지를 포함한 13인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44주년이 되는 올 개교기념일 전까지 구성되어 본격적인 사업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박기서 교수는 "45년간의 좁은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이루었던 경희발전을 되새기고 50주년을 바라보며 더 힘찬 웅비를 다짐하는 행사내용으로 전 경희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고 기념사업회의 취지를 밝혔다.

社告

詩 문예 현상 공모

15일 마감, 형식제한없이 3편이상

본사는 개교 44주년과 창간 38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詩창작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4회 대학주보 詩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기간:1993년 5월 15일까지
▲응모부문: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응모자격: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원고제출처:본사 편집실 및 수원캠퍼스 편집실
▲심사:교내 전공교수 2인과 본사가 의뢰한 시인과 문학평론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본사 주간교수로 하여 총 6인으로 구성, 심사한다.
▲입상작 발표:5월 24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입상작 처리
1) 당선작 1편:상패 및 9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액지급
2) 가작 2편:각 상패 및 2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3) 입선작 4편:각각 소정의 상금 지급

대 학 주 보 사

"이제는 봉함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내 글이 미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진실한 글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원고봉투에 시편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자신있게 봉함하세요.

대 학 주 보 사